

적대의 시대, 커먼즈로서의 밈(meme)과 소설*

이 소 영**

요약

이 글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인 불안에서 촉발된 '적대의 형식'으로서 '반지성주의'에 맞서 '밈'(meme)과 '소설'이 어떻게 커먼즈로서 저항의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밈과 소설이 커먼즈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 보았다. 다큐멘터리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2020)를 통해 밈이 커먼즈가 되기 위해서는 탈맥락화라는 본래적 성격에서 벗어나 맥락화를 둘러싼 투쟁이 요구된다는 점을 논하였다. 또한 장정일의 『구월의 아들』(2009)을 중심으로 소설 쓰기라는 협동적 차원에서 소설이 커먼즈가 될 수 있으며, 저자의 의지에 따라 반지성주의의 상대역으로서 위치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소설' 자체가 '상품'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롯이 '커먼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이에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넷서널」(2022.8)에서 '밈의 소설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은 형식적 차원에서 '공통의 초점화'(common focalization)를 실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층위에서도 두 사람의 신체에서 시작되는 공통체를 강조하고 있었다. 여기서 밈은 공통의 초점화를 전제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며, 이들

* 이 글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던 제1회 한국 현대문학자 대회의 학술 세션 중 <한국 현대문학의 새로운 의제와 미래>에서 발표했던 포스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부실한 포스터를 대상으로 깊이있는 질문을 던져 주셨던, 토론자 오영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이러니하게도 12.3 내란 이후에야 커먼즈로서의 '밈'과 '소설'의 가능성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를 의미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공부 부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부족한 글에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이다.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의 공부로 채워 나가고자 한다.

**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의 관계를 규정하기도 한다. 즉, 밈은 두 신체 간의 부딪힘 속에서 커먼즈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2.3 계엄 이후 X(구 twitter)에서 한강의 소설 및 연설문에서 도출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어떻게 밈화되는지, 곧 ‘소설의 밈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소설이 커먼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적대, 반지성주의, 밈, 소설,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2020), 『구월의 이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12.3 계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밈의 소설화, 소설의 밈화

목차

1. 반지성적 적대라는 시대적 경향에 맞서서
2. 밈과 소설이 커먼즈가 되기 위한 조건
3. 밈의 소설화: ‘공통적인 것’의 실험
4. 소설의 밈화: 12.3 내란 이후에 부쳐

1. 반지성적 적대라는 시대적 경향에 맞서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 계엄은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말했던 ‘소유 공화국’의 일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소유와 자본에 구현된 권력, 법에 뿌리를 두고 법에 의해 전적으로 뒷받침되는 권력”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노출한 것이다. 계엄 이후 국민 대다수의 범감정에 어긋났던 체포 실패와 지지부진했던 탄핵 정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몇몇 아쉬운 결과들은 법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제든지 왜곡·지연되어 실행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상 계엄의 “초재적 권력과 폭력”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번 내란의 근본적인 목적으로서의 소유와 자본의 불법 증식, 그리고 이를 충실하게 뒷받침했던, 심지어 현

제도 지속되고 있는 법 기술의 제 양상을 놓칠 공산이 크다.¹⁾ 이러한 의미에서 비상 계엄 당시 불쑥 튀어 나왔던 “중북 반국가세력”이라는 유구한 표현은 법 기술자의 공여지책으로써 말 그대로 수사에 가까웠다.²⁾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는 권력자의 집요한 의지가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사어(死語)를 끌고 나온 것이다. 이는 그가 계엄을 통해 “죽여도 되는 존재로서 내외부의 적에 대한 규정”을 창조해 내려고 했음을 나타낸다.³⁾ 의미심장한 것은 “중북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적 표현에서 이 시대의 적대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으로서 반지성주의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적대’란 혐오가 상대방에 대한 멸시에 기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자신과 대립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어도 ‘반대자’로서 상대의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적대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정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자의 정당성을 승인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절멸시키려는 데서 발생한다. 상대가 민주주의의 내 게임 규칙에 부합하는 존재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를 밀어낸다는 면에서 ‘의도적인 무지’이다.⁴⁾ 이러한 반지성주의의 극단적인 사례가 윤석열이었을 뿐, 기실 세계 곳곳에서 반지성적 적대가 팽배해지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본질은 부를 생산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데, “생산을 자극하고 조직하는 도식을 제시하지 못한 신자유주의의 무능”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부와 소득을 생성하기보다는 재분배하는 데 치중해 왔다.⁵⁾ 신자

1)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초재적 권위와 폭력에 초점을 둘 경우,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주된 권력 형태로서 “소유와 자본에 구현된 권력, 법에 뿌리를 두고 법에 의해 전적으로 뒷받침되는 권력”을 가리고 신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역, 『공통체』, 사월의책, 2014, 30면.

2)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중북 반국가세력 척결, 헌정질서 수호”」, 『한겨레』, 2024.12.3.

3) 황호덕, 「계엄과 한국문학-한강의 질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동문화연구』 13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25, 124면.

4) 샬탈 무페, 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15면.

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앞의 책, 371면.

유주의적 분배 시스템이 불평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해소되지 못한 신자유주의적인 불안이 반지성적인 적대로 표출되는 것이다.

반지성주의란 “지식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에 기초해서 지적인 작업 전반에 대한 경멸적 태도를 드러내는 사회적 경향”이라기보다는 과거 그람시나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던 ‘지식인’이 종적을 감춘 상황에서 “지성의 역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때 지성의 역량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도나 해러웨이는 나치 전쟁 범죤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사유 무능력에 관한 한나 아렌트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현재 인류세라 불리는, 인간을 포함한 복수종이 처한 대규모 죽음과 멸종의 위기의 근저에 사유의 포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기 이외의 것들이 고유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 즉 응답-능력이 부재했다. 그에게는 평범한 사유가 결여되어 있었다. 기능과 임무가 중요할 뿐, 세계는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세계를 돌봄의 문제로 사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집단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⁷⁾

이러한 반지성주의는 오늘날 극우 세력의 전략이자 스타일이다. 현재 극우 세력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욕의 형식”은 반지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⁸⁾ 반지성주의는 자기 이외의 세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토지, 물, 숲, 지식 체계, 돌봄 역량을 포함한 공유된 자연적 혹은 사회적 부로서의 커먼즈(common)를 인식할 수 없다. 또한 “공유 자체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연대의 끈”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커먼닝(commoning)을 사유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⁹⁾ 따라서 현재 새로운

6) 이택광, 「반지성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자음과 모음』, 2017. 가을, 189-198면.

7)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참조.

8) 인아영, 「2022년 여름호를 펴내며-반지성주의 시대의 문학」, 『문학동네』, 2022. 여름, 3면.

9) 실비아 페데리치·조지 카펜치스, 권범철 역,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선 커먼즈」, 『문화과학』, 2020. 봄, 185-186면.

커먼즈가 투쟁해야 할 대상은 바로 반지성적 적대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식·문화 커먼즈의 사례로서 ‘밈(meme)’과 ‘소설’에 주목하고 밈과 소설이 적대의 시대에 반지성주의에 저항하는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밈과 소설이 지닌 커먼즈로서의 성격을 논하기 위해 2장에서는 다큐멘터리 <밈 전쟁: 개구리 폐폐 구하기>(2020)와 장정일의 소설 『구월의 이틀』(2009)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밈이 소설에 직접적으로 차용되어 있는 김기태의 소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밈의 소설화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2.3 내란 국면에서 X(구 twitter)를 중심으로 한강의 소설 및 연설문에서 비롯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밈화되었던 현상을 해석함으로써 적대의 시대에 소설의 밈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사유해 보고자 한다.

2. 밈과 소설이 커먼즈가 되기 위한 조건

피터 라인보우는 커먼(commo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하면서 ‘같이 하기’(fellowship)의 뜻이 삭제되었음을 짚어낸 바 있다. “공유하기·행동하기·평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제거됨으로써 커먼즈는 ‘천연 자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린다.¹⁰⁾ 한편,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으로서 천연 자원뿐 아니라 “지식, 정보, 이미지, 정동, 사회적 관계”와 같은 부의 공통적 형태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노동의 산물과 미래의 생산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¹¹⁾ 그들에 의하면 아이디어, 이미지, 코드 등은 고독한 천재의 머릿속이나 장인과 도제의 관계에서 탄생하지 않는다. 바로 “협력하는 생산자

10) 피터 라인보우, 정남영 역, 『마그나카르타 선언』, 갈무리, 2012, 320-321면.

11)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앞의 책, 207-208면.

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공통적인 것을 생산해 낸다.¹²⁾ 이들에게도 핵심은 바로 ‘협력’이다. 대규모 산업의 생산 과정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협력 계획 및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가치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인지 노동과 정동 노동에서 노동자들은 대개 자본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협력하며 일한다. 이 때문에 자본은 이제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협력을 수탈하려고 한다.¹³⁾ 즉, ‘협력’은 커먼즈를 규정하는 핵심 용어이자 그 자체로 투쟁의 장이다. 밈을 커먼즈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밈에 내재되어 있는 협력의 의미와 밈을 둘러싼 역학을 밝혀내야 하는 셈이다.

‘밈’(meme)은 리처드 도킨스가 고안한 개념으로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를 뜻한다. 그는 유전자를 뜻하는 ‘gene’과 발음이 유사한 단음절의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재현과 모방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mimeme’을 ‘meme’으로 줄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도킨스는 밈이 유전자처럼 ‘이기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는 밈이 전달되는 중에 변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이 과정에 ‘협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 보인다. 밈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밈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밈들은 서로의 생존에 유리한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밈은 여기에 쉽게 침입할 수 없기에 밈 복합체는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밈은 이기적이며 심지어 잔인한 것이다.¹⁴⁾ 이와 달리 김경수는 리모르 시프만의 ‘인터넷 밈’ 개념을 참고함으로써,¹⁵⁾ ‘밈’과 ‘인터넷 밈’이 명백하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는 밈을 “합성

12) 위의 책, 254면.

13) 위의 책, 208-209면.

14)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이상임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8, 364-375면.

15) 리모르 시프만에 의하면, 인터넷 밈은 “① 콘텐츠, 형식, 그리고/또는 입장이라는 **공통적 특징들을 공유하는 디지털 아이템들의 집합**이자, ② **타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탄생한**, ③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유포되고 모방되며 변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모르 시프만, 최은창 역, 『디지털 문화의 전파자 밈』, 한울, 2022, 26면.(강조는 원문)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대안적인 놀이”이자 “놀이를 통해서 작품을 생산하는 창작 행위”라고 정의한다.¹⁶⁾ 그에 의하면 “인터넷 밈에는 네트워크를 거치며 우연하게 매개된 공통 저자들”이 있으며, “인터넷 밈의 디지털 풍화(화질 열화)”를 일으키는 기계도 인터넷 밈의 저자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에 그는 인터넷 밈이 “지적 재산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역설한다.¹⁷⁾ 하지만 여기서 평등을 위해 행동한다는 의미에서의 ‘협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밈이 “상대방과 내가 평등해지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상대방과 달라지려는 노력 아래서 성립”한다는 점 또한 해명되지 않는다.¹⁸⁾

밈에서 ‘협력’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읽어 내기 위해서는 도킨스가 문화적 특성의 진화와 그 생존 가치를 말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상기해야 한다. 밈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¹⁹⁾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2020)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밈 퓨리의 만화 <Boy’s Club>의 개구리 캐릭터였던 ‘페페’가 ‘4chan’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의 패배감과 소외감을 표현하는 밈으로 사용되다가 결국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극우파의 마스크트가 됨으로써 반명예훼손 연맹에 의해 혐오 상징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원작자인 밈 퓨리는 처음에 인터넷에서 페페가 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고소하라는 친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었다. 퓨리가 페페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페페는 인터넷, 특히 4chan 커뮤니티 내에서 일종의 문화 커먼즈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이는 페페를 둘러싼 사안을 바라봄에 있어 커먼즈 정치의 접근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커먼즈가 누구에

16) 김경수,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 필로소픽, 2024, 44면.

17) 위의 책, 60-61면.

18) 위의 책, 130면.

19)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어떤 문화적 특성이 단지 그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 앞의 책, 376면.(강조는 원문)

의해 어떤 의미로 규정되는지, 커먼즈에 대한 권리는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를 담지하며 주장되고 경합하는지 등을 탐구하는 것이 커먼즈 정치 연구의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커먼즈는 “커먼즈를 만드는 공동의 인식과 규칙, 관행 등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커먼즈를 만드는 행위자 (commoner; 커머너) 또는 공동체(community)가 커먼즈를 만드는 행위 (commoning)”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²⁰⁾ 즉, 미국의 우파 청년들은 ‘커머너’로서 페페의 이미지를 그로테스크하게 변형하고 재생산함으로써 극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페페를 ‘커머닝’한 것이다.

원작자인 퓨리는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페페를 혐오의 상징물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물로 전환시키려는 페페 구명 운동을 펼친다. 이에 대해 4chan 커뮤니티 유저들은 페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이는 외부자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할뿐더러 적대적인 ‘빋장 커먼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¹⁾ 4chan 커뮤니티 유저들의 소유권 주장은 커먼즈가 언제든지 사유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흥미로운 것은 퓨리와 4chan 커뮤니티의 대립과 상관 없이 페페의 구명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인데, 인터넷 상에서 페페의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페페가 ‘밈’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자연스러운데, 다큐멘터리에서 설명하듯이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보편적 다윈주의”에 바탕을 두고 “생물학적인 모든 것은 유전자에 의해 좌우되지만 문화는 밈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론”을 펼쳤다. 주변을 둘러 보면 “사람 사이의 모방을 통해 복제된 정보가 원시적인 문화의 바닷속에서 떠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남은 것들은 진화의 싸움에서 이긴 승자들”이라는 것이다.²²⁾

20) 안새롬, 「한국의 대기·기후 보전 실천과 커먼즈 정치」, 서울대학교 협동 과정 환경교육 전공 박사학위논문, 2022, 33-35면.

21) 실비아 페데리치·조지 카펜치스, 앞의 글, 181면.

22)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2020) 참조.

곧 페페는 수많은 짚들과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밈이었다. 페페는 탄생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의 적자 생존, 즉 진화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결국 퓨리는 오염된 페페를 상품화하려는, 인포워즈(Infowars)라는 극우 사이트 운영자인 엘릭스 존스에 맞서 페페의 저작권(copyright)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데, 페페는 “자본주의 인클로저에 문제 제기하는 공유 문화와 커머닝의 실천, 즉 ‘카피레프트’copyleft 정신”²³⁾을 바탕으로 커먼즈로서 재탄생한 것이었지만, 오염된 페페를 구하기 위해서는 페페는 더 이상 커먼즈가 아니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페페의 커머닝을 방해한 우파 청년들의 반지성주의는 일부 커머닝의 양태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것이 본질적 의미에서의 커먼즈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페페를 통해 추구했던 가치는 평등이나 협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이다.²⁴⁾ 커먼즈가 결국에는 기존의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던 관계성을 재사유하는 작업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지성주의는 자신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응답-능력 자체가

23) 이광석, 『피지털 커먼즈』, 갈무리, 2021, 201면.

24) 박인성은 밈의 양면적인 성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는 밈이 유포의 측면에서는 오픈 소스처럼 열려 있지만 사용 맥락에서는 엄격하고 폐쇄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후자의 성격에 주목하는데, 밈이 원본에서 탈맥락화하여 유행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밈의 원본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커뮤니티의 부족주의를 응집·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는 2000년대 이후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생한 밈에 대해 분석한다. 그의 글에서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문화이다. 그는 “서포터 중에서도 수동적인 롤을 수행하는 챔피언을 하는 게이머들을 여성화하여 ‘혜자’라고 호명하고 책임을 묻는 논리 내부에는 단순한 여성혐오만이 아니라, 구조화된 계층적 혐오”가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협동 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가 “경쟁”보다도 “협동” 자체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인성, 「밈과 신조어로 읽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부족주의-남초 커뮤니티의 정서적 평등주의와 위임된 성장서사」, 『대중서사연구』 28(2), 대중서사학회, 2022, 65-71면.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글에서는 밈이 커먼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천착해 보고자 한다.

부재하기에 세계를 돌봄의 문제로 사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커먼즈는 적대의 시대에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근본적 한계 내에서 반지성주의적인 폭력에 맞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뭍 전쟁: 개구리 폐폐 구하기〉는 말미에 홍콩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폐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원작자도 성공하지 못했던 뭍의 재의 미화가 커먼즈를 통해서 가능함을 증명한다. 나아가 이는 두 가지 사실을 환기하도록 이끈다. 하나는 자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상품과 커먼즈는 언제나 공존해 왔으며, 어떤 사물이 상품이 될지 커먼즈가 될지는 언제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는 것이다.²⁵⁾ 탈맥락화를 전제로 탄생했던 뭍이 상품 혹은 커먼즈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다른 하나는 커먼즈는 언제나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²⁶⁾ 즉, 뭍은 언제나 맥락화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동반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지식·문화 커먼즈로서 소설의 운명을 떠올리는 것은 비약일까. 상품의 형식으로서 소설을 주장했던 장정일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장정일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서 ‘소설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는 “가짜 표정”이 상품 형식에 내재해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제목 자체가 상품의 기만적 형식을 드러내며, 소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²⁷⁾ 하지만 장정일이 소설을 상품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작품 『구월의 이틀』(2009)에서는 소설 쓰기의 방법으로 세계문학전집 100권 읽기를 제시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문예창작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단 100만 원 안팎으로 소설가가 되고 시인이 되는 알뜰한 방법을 가르쳐줄게. 먼저 소설가가 되고 싶

25)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2020, 봄, 21면.

26) 실비아 페테리치·조지 카펜치스, 앞의 글, 176면.

27) 피터 라인보우, 앞의 책, 96면.

다면, 제대로 된 세계문학전집을 100권 사. 그리고 ‘오호 너 소야? 나 최 영의야!’ 하는 식으로 무조건 1권부터 읽어나가. 전집은 그렇게 해야 다 읽어. 중간에 재미있어 보이거나 호기심이 나는 것부터 빼먹고 나면, 나머지는 절대 못 읽어. 한 60여권 정도 읽고 나면 소설이 뭔지 감이 잡히고, 한 80여 권을 읽으면 이미 소설가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도 안 되면 100권까지 모조리 읽는데, 그런데도 소설가가 안 되어 있으면 문학을 작파하고 다른 길을 가야 해. 노력을 해도 안 되었으니, 신이 재능을 안 준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²⁸⁾

정보, 즉 지식 생산이 기존 지식에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한다고 했을 때, 이렇듯 공동의 부를 바탕으로 다시 공동의 부를 확대시키는 것은 ‘커먼즈에 의한 커먼즈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그렇다면 지식을 일종의 커먼즈로 사유할 때, 소설은 지식에 포함이 되는가, 포함이 되지 않는가. 페페의 사례를 보았을 때, 소설을 커먼즈로서 사유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견고한 장르의 위계질서에 근거하여 ‘문학주의’를 고수하는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이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문화)의 커먼즈가 될 수 있다고 간주했을 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근본적 한계 내에서 반지성적 적 대리는 시대적 경향에 맞서 과연 소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장정일의 『구월의 이틀』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아담이 눈뜰 때』(1990)에서 ‘아담’의 ‘형’을 통해 운동권 출신이 어떻게 친미 성향의 우익으로 변모해 나가는지를 스치듯 서사화했던 장정일은 『구월의 이틀』에서 본격적으로 우익 청년 탄생기를 형상화한다. 이 텍스트는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을 배경으로 각각 광주와 부산 출신인 ‘금’과 ‘은’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

28) 장정일, 『구월의 이틀』, 랜덤하우스, 2009, 308면. 앞으로 인용할 때 괄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9)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생산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9(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192면.

하여 서로 친구가 되고 또 각각 좌파, 우파 성향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작가는 후기에서 “우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가, 우익청년 탄생의 비밀”이라고 단언한다.(336) 이를 고려했을 때, 이 텍스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인물은 ‘금’보다는 ‘은’이라고 할 수 있다.

03학번으로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입학했던 ‘은’은 사업을 하던 아버지와 우익 진영을 대표하는 법대 교수인 작은아버지나 학교 선생님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내면화하면서 보수주의 청년 단체의 리더로서 거듭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소수자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퀴어적인 면모는 이 소설에서 남성 우파들의 동성 사회성을 유지·강화해 주는 장치로서 소비될 뿐이다. 이는 ‘은’의 ‘일기’에 관한 ‘은’과 작은아버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어디 가서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다거나, 안락사를 도입해보자거나 하는 이런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돼. 네가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그래도 되지만, 참되고 기품 있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실제로 네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도 절대 커밍아웃을 해서는 안 돼. 도덕이란 채찍이야말로 고귀한 엘리트들이 비천한 대중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야. 그 수단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다시는 대중들을 조종할 수 없어. 알았지?”(274)

‘일기’는 성 소수자인 작은아버지만 ‘은’의 은폐되어 있는 성 정체성을 알아챌 수 있도록 ‘시’로 암호화되어 있다. 작은아버지는 ‘은’의 성 정체성을 금세 알아채지만, ‘은’이 “참되고 기품 있는 보수주의자”가 되려면 ‘커밍아웃’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커밍아웃은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다거나, 안락사를 도입해보”는 차원의 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은은 보수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렇듯 ‘은’의 ‘일기/시’는 ‘은’이 성 소수자로서 지닌 취약성을 바탕으로 평등, 돌봄, 협력, 연대 등 커먼즈의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지 못한다.

반면, ‘금’의 경우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운동권 세대”로서 “풀뿌리 지역 운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그는 “서울이나 주류 정당 정치와 거리를 두고, 광주에서 시민 정치를 실험”하고 있었는데,³¹⁾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 인수 위원에 발탁되었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하게 된다. 그는 2003년 11월 12일 자살하는데, 그 전날인 11월 11일 민주당으로부터 탈당한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었다. 물론 그의 죽음에는 보수 언론의 흠집 내기와 아내의 이혼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출간되기 직전 이 작품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그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직 중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죽음의 정치’가 시작되었음을 고려할 때 징후적인 측면이 있다.³⁰⁾

‘금’의 아버지는 ‘금’에게 ‘지성주의’뿐만 아니라, ‘같이 하기’의 가치를 전수해 준 인물이었다. ‘금’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법대’에 진학하고 싶어했었는데, “현대의 문명 세계란 지적 문명을 떠나서는 설명할 방도가 없으며, 대학은 바로 그런 지적 세계의 총화”로서, 특히 ‘법’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점수에 맞춰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지만, 이런 대목에서 ‘금’이 지성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동을 했던 아버지 세대는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끼리 혈연보다 더 가까운 유대를 가”짐으로써 일종의 “유사 가족”을 형성하고 “누구네 생일이나 이사와 같은 대소사는 물론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회를 갖

30) 다음 책의 2부 ‘애도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참고할 것. 천정환, 『송배 애도 적대』, 서해문집, 2021, 151-261면.

거나 여행을 다녔다.”(48) 이러한 에피소드는 커먼즈의 본래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같이 하기’라는 점을 기억했을 때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다.

‘금’은 “한 번도 문학 작품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 거짓말”을 실험해 보곤 했다.(26-27) 소설 초입에 서울로 가는 이삿짐 트럭 안에서 소설가 지망생인 트럭 운전 기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금’은 ‘사무엘 베기파스’라는 가상의 소설가와 그의 가상 소설인 『지붕만 남은 마을』을 “창작”해 낸다. 비록 모두 거짓말에 불과했지만, 운전 기사는 “금의 열정에 찬 거짓말에 감화되어 실존하지도 않는 작가의 가상의 작품이,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곧바로 찾을 수 있는 물건인 듯 여겨졌다”(32) 이렇듯 “문학에서 의미와 가치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협동적 창조야말로 언어가 갖는 커먼즈로서의 본성을 가장 여실히 체현한다”는 점을 생각하면,³¹⁾ ‘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운전사와 협동적 창조로서의 커머닝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금’은 탄핵 반대 촛불 집회에서 이삿짐 운전사와 다시 조우하게 되는데, 베기파스의 책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는 운전 기사의 말에도 거짓말을 유지한다. 그리고 운전사에게도 소설을 쓰라고 권유한다. 이는 이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협동적 창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금’이 운전사에게 소설 쓰기를 권함으로써 ‘같이 하기’를 실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금’은 탄핵 반대, ‘은’은 탄핵 찬성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금’은 소설가가 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은’은 보수주의 정치인이 되겠다는 소신을 드러낸다. ‘은’은 이들이 상경할 때 교통사고에서 혼자 살아남은 아이를 봤었던 것을 언급하며, “나는 그런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어.”라고 말한다. ‘금’은 “방금 은이 했던 말이 광주에서 내려가서 읽었던 어떤 미국 소설의 한 구절이라는

31) 황정아, 「문학성과 커먼즈」, 『창작과 비평』, 2018. 여름, 25면.

것을 알고, 미소 짓”는다.(328) 이와 같은 대목은 ‘은’에게 문학이란 ‘커먼즈에 의한 커먼즈의 생산’이지만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문학은 언제나 보수주의적 가치에 의해 탈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금은 문학 공동체에 긴 비전을 제시하는, “공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국민’ 소설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국민’이 어감은 좀 안 좋지만, 국민작가란 한 나라의 국민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에게 돌아가 현재의 문제를 조회해볼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라는 것이다.(323-324)

물론 서술자는 ‘금’의 선택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금’이 ‘은’과 함께 목격했던 교통사고에 대해서 의미부여하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은, 너도 알고 있지? 우리가 보았던 그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혼자 살아남은 그 아이처럼, 너와 나도 고속도로 위에 내던져진 고아야. 부모 없는 고아야. 너는 말했지. 그 아이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잘하길 빌겠어. 나는 소설을 쓰겠어. 언젠가 너는 중세의 알레고리였던 ‘바보들의 배’에 비유해서, 문학을 ‘패배자들의 배’라고 불렀지. 문학은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타는 배나 같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까 말한 국민작가라는 개념으로부터, 나는 문학이란 현실로부터 패배한 자들의 산물이라는 일반적인 속설은 물론이고 너의 위조지폐범론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발견했어. 그건 네가 하려는 정치보다 보잘것없거나, 힘이 없는 게 결코 아니야.’(330-331)

이 소설에서 교통사고는 한국 사회의 “구월의 이틀”에 해당하는 “원체협” 혹은 “정신적 외상”으로서,(131) “한국사회가 감추고 싶어 하는 2인치, ‘빨갱이 콤플렉스’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148) 한국 사회가 은폐하고 싶어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원체협 또는 정신적 외상으로서 빨갱이 콤플렉스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이에 대한

일종의 트리거로서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금’의 아버지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금’이 소설가를 지망하게 되었으며, ‘은’은 우익 청년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작가는 ‘은’이 우파 기성 세대들과의 사상 투쟁을 통해 “젊고 순수한 우익”으로 단련 되어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지만,(336) 오늘날 우파 청년들이 내세우는 ‘반지성주의’라는 전략 내지 스타일은 ‘은’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반지성주의’는 ‘지성의 역량을 부인하기에 사상 투쟁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소설에서 기시감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이다.

한편, 이 텍스트는 2001년 연말 BC카드의 ‘부자되세요’ 광고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해졌던 자본주의적 욕망 또한 작중 인물의 ‘이름’인 ‘금’과 ‘은’으로 표시하고 있다. 2003년 1월 29일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한국의 부자들』을 지나치게 길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금’은 『한국의 부자들』에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적인 욕망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은’도 아버지의 잦은 사업 실패로 오히려 ‘돈’에 초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인물들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이름이 결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져 있는 배경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과 ‘은’이 각자의 출신 지역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해지게 된 계기를 “자연선택”으로 결론내리는 것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순수한 혈통끼리 교배하는 것보다 서로 이질적인 잡종 교배가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함으로써,(161) 자본주의와의 친연성을 드러낸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근본적 한계 내에서 반지성적 적대에 맞서 소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제시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았을 때, ‘금’이 고향인 광주로 돌아간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광주는 ‘금’의 아버지가 ‘풀뿌리 지역 운동’에 종사하던 곳으로서 그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 실상을 알기는 어려우나, 서울이나 주류 정당 정치와는 다른 방식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 더욱이 ‘곰’은 광주로 돌아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게 소설 쓰기란 협동적 창조의 과정이었다. ‘은’에게 ‘문학’이 커먼즈에 의한 커먼즈의 생산물로서 보수주의, 나아가 반지성주의적 맥락에 의해 언제든 포획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곰’의 소설 쓰기는 협력의 과정, 곧 커머닝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가 쉽게 약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곰’이 ‘은’의 극우주의에 맞서 ‘국민’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 소설은 적어도 저자의 의지에 따라 반지성주의의 상대역(counterpart)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소설이라는 상품이 그 자체로 커먼즈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이에 답하기 위해 밈의 소설화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밈의 소설화: ‘공통적인 것’의 실험

밈이 커먼즈가 되기 위해서 맥락화·서사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밈과 소설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밈을 단순히 소설에 삽입했다고 해서 밈, 그리고 그 소설이 곧바로 커먼즈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상품이기 때문이다. 밈의 소설화가 커먼즈로 의미화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차원에서 상품을 상쇄할 정도의 ‘공통적인 것’이 요구된다.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문장 웹진』, 2022.8.)은 내용과 형식에서 ‘공통적인 것’을 실험한다.³²⁾ 이 텍스트는 ‘진

32) 이희우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최소한의 커뮤니티’이라 할 만한 것을 상상하게끔 한다고 해석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경쟁과 평가, 서열과 위계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미약한 공백을 만들어내는데, 그 빈 공간은 협력과 의존, 값이 매겨지지 않는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전체가 되려 하

주'와 '니콜라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진주는 가정폭력의 생존자이고, 니콜라이는 외국 국적의 동포로 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 왔지만, 근본적으로 '가난'을 공유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리고 서울 동북부의 한 중학교로부터 서로를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다.

교문에 들어서서 걷는 길에는 흰 꽃이 피는 나무들이 있었다. 나무의 이름은 몰랐으나 때가 되면 바람에 흩날리는 희고 풍성한 꽃잎들은 **기억에 남았다**. 그런 따뜻한 봄날의 오후였다. 두 사람은 교무실에 나란히 섰다. 3학년이 되어 처음 같은 반에 배정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담임교사는 두 사람에게 각자의 이름이 적힌 흰 봉투를 줬다. 그 교사는 세심한 사람은 아니었다.

“행정실에서 준 건데 뭘지는 나도 몰라. 부모님께 그대로 전해드려.”

대개의 애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런 봉투를 받을 일이 없었다. 두 사람은 매년 한두 번은 받았다. 보통은 담임으로부터 은밀하게 일대일로, “요즘 학교생활 어떠니” 같은 부담스러운 친절과 함께 전해지는 봉투였다. 늘 밀봉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어떤 것이 들어 있을지 잘 알았다. 대개는 내야 할 어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안내문이었다.

그날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그 교무실에서 한 번은 눈이 마주쳤다는 기억.

는 움직임을 확장적인 보편성"이라고 규정하며 이 작품에 드러난 확장성의 사례로 '맘'에 주목한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맘이 어떻게 니콜라이와 진주의 방식으로 재맥락화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친한 사이"라는 농담이 "동등한 둘의 우애와 협력, 공생의 형식으로서 시협중인 사랑"을 뜻한다고 의미화한다. 이희우, 「평범한 자는 들어오라」,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2024, 312면. 325-329면. 이러한 평가는 본고의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것'의 실험은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통적인 것'이 어떻게 형식적·내용적으로 형상화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너도 봉투 받는 애구나.’

여자에라거나 남자에라거나, 귀엽다거나 못생겼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이전에 권진주와 김니콜라이는 서로를 그렇게 알아봤다.³³⁾

두 사람은 어느 봄날의 오후에 담임 교사로부터 “내야 할 어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안내문”이 담긴 봉투를 함께 받는다. “그날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교무실에서 한 번은 눈이 마주쳤다는 기억”은 남아있다. 이들의 첫 인상은 “너도 봉투 받는 애구나”였다. 이들은 “서로를 그렇게 알아봤다.” 즉, ‘가난’이라는 공통의 경험. 담임 교사는 이들에게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말했지만,(114) 두 사람은 전혀 친해지지 않았고 각자 대학교를 졸업한 뒤, 니콜라이는 전조등 공장, 진주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시점에 우연히 만나 결국에는 “친한 사이”가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줄거리이다.(142)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억이 서사화되는 방식이다. 위 인용문에서는 기억을 하는 초점화자가 진주인지, 니콜라이인지를 알 수 없도록 불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동일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여자에라거나 남자에라거나”와 같은 성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각자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어 미묘하게 완전히 똑같은 기억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이 주어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진주와 니콜라이가 동시에 초점화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초점화자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변적인’ 초점화나 같은 사건을 여러 인물의 시점에 따라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복수’(multiple) 초점화와는 다르다.³⁴⁾ 공통의 기억이나 생각을 두 사람의 시점으로 전달한 뒤에 곧바로 개별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2024, 114면. 앞으로 인용할 때 괄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34) 제라르 주네트,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178면.

예를 들면, “흰 봉투를 또 받았는데 이번엔 각자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개도 받았나?’ 잠깐 궁금해했다.”라는 서술 뒤에 진주가 봉투를 뜯어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엄마에게 보내고 늦은 시간 답장을 받는 대목과 니콜라이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안내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한 단락 안에 묘사된다. 그리고는 다음 단락에 “언젠가는 흰 봉투 안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서술되는 식이다.(115-116) 이들은 ‘가난’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다. 때로는 공통의 인식에 이르기조차 하나 그것은 순간적일 뿐이다.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공통적인 것’이 ‘동일성’이나 ‘통일성’으로 나아갈 경우 가족·민족·종교처럼 부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공통적인 것’은 다양체들로 구성된다.³⁵⁾ 이 소설의 시점은 ‘공통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경험·세계를 공유하면서도 저마다 특이성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시점을 ‘공통의 초점화’(common focalization)로 정의하고자 한다. 공통의 초점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이들이 ‘가난’이라는 공통적인 세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줘서이다. 공동의 세계가 없다면 서로 소통하거나 각자가 지닌 욕구와 욕망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공통의 초점화는 이들이 ‘동일성’이나 ‘통일성’으로 수렴되지 않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다양한 특이성이 아니라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필요조차 없었을 터이다.³⁶⁾

‘땀’은 취약한 존재였던 니콜라이와 진주가 소통하는 계기로 등장한다. 니콜라이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난 뒤 여러 공장을 전전한 끝에 전조등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대기업의 2차 하청이어서 다른 공장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지만, 니콜라이는 외국 국적의 동포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간주되어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귀화하기 위해

3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앞의 책, 264-266면.

36) 위의 책, 267면.

서는 영주권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봉이 삼천팔백만 원이어야 한다. 즉, 니콜라이의 귀화는 요원한 일이다. 진주의 경우 여고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지원받고 ‘기회균형’ 혹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서울 변경의 사년제 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한다. 졸업 후 사무실 두 군데에 취직한 적도 있지만 “수당 없는 초과근무와 급여 지연, 갑질과 성희롱” 때문에 그만두고 마트에서 사람들이 쏟아부으려 주문한 물건을 찾아 담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123) 각자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은 인스타그램 대신 “이런저런 커뮤니티 게시판을 스크롤하며 킁킁”거렸었고, 우연히 경기도 동남부의 한 도시에 위치한 주민 센터에서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된다.(119) “진주는 정말 연락을 할 일이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두 시간 뒤 니콜라이가 페페 밈을 보냈을 때 삼년 전에 구입한 펑수 이모티콘을 골라 화답한다.(121) 이들은 이삼 주에 한 번씩 만나 혼자서는 사먹기 어려웠던 갓 요리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점차 가까워진다.

결석하지 않고 학교도 잘 다녔다. 법을 어긴 적도 없었다. 하루에 삼분의 일에서 이분의 일을 일터에서 성실히 보냈고 공과금도 기한 내에 냈다. 그럼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산다고 만족해야 할까. ‘스물일곱 살 인생 평가 좀’ 같은 제목의 글에 사람들이 쏟아부는 댓글을 보면 가끔 뭘 잘못된 것 같기도 했다. 더 잘 살고 싶었다면 공부를 더 잘했어야 한다고. 술뚜껑삼겹살도 즉석떡볶이도 먹지 말고 맥주도 마시지 말고 섹스도 하지 말고 닥치고 공부해서 시험에 붙든 돈을 모으든 했어야 한다고. 남들 다 자리잡을 때 어리바리하고 게을렀던 우리가 ‘뺨대가리’라고. 두 사람은 이런 질문에 도달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았냐?”

빨간 모자를 쓴 해병 병장은 내가 선택한 길이니 악으로 강으로 버티라 했고 김정은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추노꾼 장혁이 오열하며 삶은 계란을 씹었고 개구리도 눈물을 줄줄 흘렸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안 젖을 수 없는 여기는 아마아마 아마존. 편하고 쿨하고 섹시한 미소를 짓는 옆 나라의 정치인. 인생이란 역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끄덕). 둘리가 답했다. 아이 싹팔.

위 인용문에서 니콜라이와 진주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들과 유사한 삶에 대해 가혹한 댓글을 던진다. “더 잘살고 싶었다면 공부를 더 잘했어야 한다고, 술뚜경삼겹살도 즉석떡볶이도 먹지 말고 맥주도 마시지 말고 섹스도 하지 말고 닥치고 공부해서 시험에 붙든 돈을 모으든 했어야 한다고, 남들 다 자리잡을 때 어리바리하고 게을렀던 우리가 ‘뺨대가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은 공통된 질문에 도달한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았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판적 인식 뒤에 다수의 밈들이 나열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리처드 도킨스가 말했던 밈 복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각각의 밈들은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를 구성한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계에서 더 잘 살기를 바랐던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오롯이 본인만이 감당해야 하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아무리 슬퍼해도 이 세계는 너를 도와주지 않으며 오히려 모두가 힘들다는 점에서 평등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예외는 있다. 기성 정치는 이를 방관할 뿐이고,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여러 개의 밈이 결합됨으로써 현실에 대한 순응, 체념, 슬픔, 분노의 정동을 강화한다. 결국 이러한 밈 복합체 뒤에는 신자유주의적인 불안이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물론 반지성적인 적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이러한 밈 복합체에 머물러 있는 대신 다른 밈을 “택했다.” 그것은 바로 “기립하시오 당신도!”라는 밈이었다. 그는 어느 주말 진주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방에 누워있다고 했을 때, “이불을 덮은 개구리”와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고양이’ 이미지를 그려려다가 그 곳곳이 선 소녀”를 진주에게 보낸다. 진주는 “세상에는 나쁜 농담이 많았으므로 구글에서 유래를 검색해” 본다.(135) 이러한 진주의 태

도는 ‘밈’이 반지성주의적으로 쓰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경계하는 태도로 할 수 있다. 진주는 이 밈이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에서 유래했으며, 한국에서는 운동권들이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기 전에 선창하는 구호였음을 알게 된다. 진주는 위키를 통해 밈의 맥락을 살펴본 후 “움직여야지, 나도 움직여야지”하며 이불을 걷고 기지개를 켜다.(136) 니콜라이가 진주를 응원하는 마음이 밈을 통해 그녀의 신체로 연결되어 특정 행위를 유발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커먼즈로서의 밈의 형상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밈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밈을 볼 특정 누군가의 신체를 염두에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커먼즈가 될 수 있다.

반지성주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타자에 대한 응답·능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자기 이외의 것들이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다른 누군가의 신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비물질적인 인터넷 세계에서는 신체가 더욱 비가시화되므로 반지성적 적대는 한층 더 극심해진다.³⁷⁾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현재 반지성주의는 젠더, 인종, 장애, 연령 등 타자의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그들을 비난하며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신체는 반지성주의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듯 신체에 대한 반지성적 적대의 모순적인 태도는 이들이 근본주의적이기에 지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에 의하면 근본주의는 신체에 강박적인 관심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향한다. 근본주의 입장에서 신체는 “강력하고 폭발적이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신체의 생산성을 막거나 봉쇄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게 만든다. 하지만 커먼즈로서의 밈은 평등·협동·돌봄·연대를 지향하는 맥락 속에서 출현하며 신체의 힘을 강조한다.

37) “밈의 사용을 통해 강력한 부족주의의 소속감을 획득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인터넷 상에서의 거친 언어와 모욕적인 대상화, 상대방을 향한 혐오 표현에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여긴다. 그들에게 모든 것은 역할놀이이며, 그들이 모욕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가면을 뒤집어 쓴 허구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인성, 앞의 글, 72면.

그래서 반지성적 적대가 강조하는 신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의미화함으로써 역방향의 조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³⁸⁾

물론 이 텍스트에서는 밈이 지닌 한계도 분명하게 제시된다. “기립하시오 당신도!”는 “현장실습생과 제빵사, 택배 기사와 대학 청소 노동자”나 산재 사망 등에 관한 게시물에도 나타났지만, “한국 치킨으로 신세계를 맞본 영국인이나 데드리프트가 3대 운동 중 최고인 이유, 다이어트할 때 기립성 저혈압 조심해” 같은 제목의 게시물에도 등장한다. 이는 밈의 형성 조건이 탈맥락화였음을 상기할 때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고, 진주와 니콜라이도 거기에 속했다. 더욱이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밤에 〈인터내셔널가〉를 들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진주와 니콜라이의 검색어를 기억했다.”(136-137) 즉, 밈을 맥락화하여 전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알고리즘’이라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스템도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커먼즈로서 밈을 생산하는데 협력한다.

이들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자율적으로 동거를 선택한다. 큰 마음 먹고 산 식탁은 볼트를 체결할 구멍이 잘못 파여 있어 잘 조립되지 않는다. 니콜라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역사……”라고 생각하려다가 “대륙의 저편에 있는 금형 공장과 돌아오른 기계, 기름때가 묻은 러닝셔츠를 입은 중국인 혹은 중국인이 아닌 누군가, 그가 점심으로 건져 올리는 이름 모를 하얀 국수”와 “젓가락을 쥐 손가락들”을 상상하고 탓하지 않는다.(141) 이러한 인식에 “기립하시오 당신도!” 밈이 끼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작가는 이렇듯 밈이 커먼즈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신체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 보인다.

옆으로 누워 있던 식탁을 함께 들어서 세워봤다. 세 다리로 서는 듯……

38)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앞의 책, 67-76면.

하다가 이내 한쪽으로 기울었고 그러면서도 쓰러지진 않았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고 푸하하 웃었다. 종이 상자와 포장 비닐로 어질러진 바닥. 기울어진 식탁 옆에서 스페너와 손걸레를 손에 쥔 채 껴안은 두 사람.

침대에 누워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안은 건 처음이었다. 낯설고 새롭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오래 미뤄둔 질문을 떠올렸다.(141-142)

위 인용문에서 두 사람은 세 다리의 식탁을 세워 보려다 실패하고 웃음이 터져 서로를 껴안는다. 이때의 “낯설고 새롭고 따뜻”한 감각. 그것은 바로 두 신체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강렬한 감각이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인 연유도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커먼즈는 어쩌면 가장 구체적인 두 사람의 신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연인 혹은 부부와 같은 동일성과 통일성의 범주로 귀결시키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친한 사이야.”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는 둘만의 ‘밈’이 된다. 이 밈은 “서울 동북부의 한 중학교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111-113) 그리고 이 밈은 충북의 한 금형 공장에서 손가락 하나를 잃은 ‘앙맨’이나 마트 아르바이트로 아이슬란드에 갈 여비를 모으고 유튜브로 알고리즘을 타고 날아오르기를 바랐던 ‘헝구’에게 안부 인사를 묻도록 만든다. 또한 공장과 마트 노조의 전단지들 읽고 사전을 검색하며, 이웃의 외국인 가족과 함께 식사한 후 그 집 아이의 리코더 연주를 듣는 행위까지 포괄한다. 이것이 커먼즈가 아니라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4. 소설의 밈화: 12.3 내란 이후에 부처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다. 우선은 소설도 커먼즈가 될 수 있는가. 앞서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공통적인

것'을 실험하면서 상품이라는 태생 내에서 소설이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을 최대한도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실제 사물의 모습을 생각하면 커먼즈로서의 소설이라는 개념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관점에 따라 소설은 이미 커먼즈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과 '웹진'의 형식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도 『문장 웹진』에 실렸던 작품이었다. 이미 소설은 공통의 지식·문화 커먼즈에 가깝다. 그러나 이 논문의 입각점, 즉 커먼즈는 평등·협력·연대·돌봄 등을 지향하는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정의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다. 나아가 적대의 시대에 커먼즈로서 소설이 어떤 저항의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 물음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 지점에서 황호덕의 글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그는 12.3 계엄 이후 12월 7일 「한강의 노벨 강연」에 등장했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명제와 소설 『소년이 온다』가 “비상계엄의 후과를 극복하는 과정 내내 되뇌어”지는데, 이를 통해 ‘계엄과 한국문학’이라는 오래된 연쇄는 마치 ‘한국문학과 해엄’이라는 결속으로 뒤바뀐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³⁹⁾

한강의 질문은 비상계엄 이후의 위기마다 헌법기관과 공공 미디어, 사적 인격들 사이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변형되는 한편, 의문문을 넘어 미래완료의 수행문으로 바뀌어 갔다. 제도의 정치와 시민의 정치에서 거둬 되읽히는 한강의 소설, 수다한 장소와 시간에서 되뇌어진 한강 강연의 명제와 그 수많은 변형들.⁴⁰⁾

한강의 질문과 소설은 X(구 twitter)만 간단하게 살펴 보아도 충분히 ‘밈

39) 황호덕, 앞의 글, 125-126면.

40) 위의 글, 126면.

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문장으로 인기 트윗을 검색했을 때 총 159건이 나왔다. 이는 적은 수치이지만, 한강 메시지의 ‘바이럴리티’(virality)를 측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⁴¹⁾ 159건에서 ‘과거’, ‘현재’, ‘죽은’, ‘산 자’, ‘한강’, ‘소년이 온다’로 재검색했을 때, 63건을 추출할 수 있었다. 언급량은 적지만, 누적 조회수는 약 534만 회에 달했다. 또한 ‘리트윗’과 ‘좋아요’를 합친 반응 수는 80,606건이었다. 특히 12월 14일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하루 만에 240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밈은 커먼즈로서 기능했는가? 한강의 질문은 어떤 정동을 실어나르고 어떤 밈들과 연결하여 하나의 복합체를 형성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²⁾ 12월 14일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당시, 한강의 밈은 무엇보다도 광장의 신체에 접속해 있었다. 한 X 유저는 노을 진 국회의사당의 풍경과 풍선이 날리는 장면, 그리고 응원봉을 쥔 자신의 손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 라는 질문에 그렇다!! !! !! !!”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⁴³⁾ 같은 날, 다

41) ‘바이럴리티’(virality)란 특정 메시지가 디지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여러 사람에게 확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엄청난 속도와 광범위한 도달이 특징적이다. 진파되는 메시지는 바이럴 콘텐츠(viral content)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럴 콘텐츠가 ‘리믹스’(remix)나 ‘모방하기’를 통해 파생물들을 창작하도록 유도한다면 이것도 밈으로 볼 수 있다. 리모르 시프만, *앞의 책*, 16면.

42) 이 논문의 X 자료 수집은 저작권법 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연구 목적을 위해 행해진 것임을 밝힌다. 저작권법 28조(2024년 8월 28일 법률 제20358호로 개정됨).

43) X의 게시글을 인용할 때 원문에 오타나 띄어쓰기 오류가 있을 경우 필자가 수정하였다.
https://x.com/s*****/status/1867852012907638897, 등록일: 2024.12.14., 검색일: 2026.3.28. 일종의 자기민속지학으로서 소수자·여성들이 어떤 기억과 사건을 간직한 정치적 주체로서 광장에 머물러 왔는지를 성찰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정고은, 「‘헨겔’과 ‘말벌’: 초대장에 응답·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2025. 봄, 116-132면. 12.3 내란 이후 출현한 ‘무협깃발’ 기수들의 활동을 통해 무협 장르가 어떻게 장르 소비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전환시키는지

른 유저는 "이 시국에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을 들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한강 작가님의 글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문학과 예술이 삶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경계를 넘어 연대를 이끌 수 있다고 믿게 해준다."라는 감상을 남겼다.⁴⁴⁾ 이를 고려했을 때, 한강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누군가를 돕고 구하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이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생과 사를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정동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동이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던 "지속적인 연결에 대한 허기"를 건드렸고, 바로 이 지점이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끔 한 주요 계기 중 하나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⁴⁵⁾

또 다른 X 유저는 "[토요일 광화문 집회 푸드 트럭 지원 예고 / 한강 작가의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의 우리가, 지금의 너희'라 답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인 '구국의 윤종대를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운동의 선봉에 섰던 4050세대로 소개한다. 그는 자신들의 자리를 대신한 키세스단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푸드 트럭으로나마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표한다. 안중근 열사의 혈서 이미지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단지(斷指)된 손가락의 응원봉 아이콘이 눈에 띈다.⁴⁶⁾ 한강의 마음에 함성된 이미지는 '그때의 우리'가 4050세대뿐만 아니라 안중근 열사와 같은 '죽은 자'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의 너희"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강한 정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밤새 눈을 맞으며 광장을 지킨 키세스단의 고단한 신체를 위로하기 위해 그

를 탐구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서원득·최혜령, 「광장으로 나온 무협·'12.3' 이후 시위의 '무협 깃발' 연구, 『한국언어문화』 87, 한국언어문화학회, 2025, 135-176면.

44) https://x.com/o****1**/status/1867688884899131543, 등록일: 2024.12.14., 검색일: 2026.3.23.

45) https://twitter.com/s***b***w**/status/1870757594434089301, 등록일: 2024.12.22., 검색일: 2026.3.23.

46) https://x.com/G****b****Y***n/status/1877258875881271404, 등록일: 2025.1.9., 검색일: 2026.2.16.

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끌어 낸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한강의 밈 역시 가장 구체적인 ‘타자의 신체’에 대한 상상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푸드 트럭이라는 ‘자원의 커먼즈화’를 실천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었다.⁴⁷⁾

한강의 질문은 “과거에 죽은 자. 그 소년이 지금 우리를 구하고 있다.”⁴⁸⁾ “죽은 자가 매일 산 자를 구한다.”⁴⁹⁾와 같이 강한 확신의 문장으로 변주되기도 하였다. 전자의 표현을 게시한 X 유저에 의하면, 여기서 ‘소년’은 『소년이 온다』의 모델이 되었던 문재학 군을 가리킨다. 그는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인터뷰 영상을 보고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을 변형하여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⁵⁰⁾ 또한 후자의 문구는 정계선 헌법 재판관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가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나서 진로를 변경하기로 결심하고 이듬해 서울대 법대에 다시 입학했다는 내용에 누군가 “누가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다고 할 거냐.”라고 한 트윗을 인용하면서 남긴 것이었다.⁵¹⁾ 이는 민주화 운동의 유산이 현재의 우리를 돕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전태일,⁵²⁾ 김경숙,⁵³⁾ 강경대, 박승희,⁵⁴⁾ 천세용⁵⁵⁾ 등의 ‘죽은 자들’이 호명된다. 열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의 투쟁에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역사에 대한

47) 12.3 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나눔 활동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특히 이 논문에서는 나눔 활동을 촉진한 정동으로 빛진 마음, 고마움과 미안함 등을 제시하였다. 최권호·손영은·이종화·주연선·유진선, 「12.3 비상계엄상태 이후 탄핵 촉구 집회에서 나눔 활동의 경험과 의미」, 『비판사회정책』 8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5, 68면.

48) https://x.com/c****m***/status/1866974044194808009, 등록일: 2024.12.12., 검색일: 2026.2.16.

49) https://x.com/e****R***e*****/status/1904073582374011076, 등록일: 2025.3.24., 검색일: 2026.3.23.

50) 사용자 ‘c****m***/’님은 트윗을 작성하게 된 맥락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51) https://x.com/e****R***e*****/status/1904073582374011076.

52) https://twitter.com/s****s_***/status/1884055473974104196, 등록일: 2025.1.28., 검색일: 2026.3.25.

53) https://twitter.com/a****s****n/status/1883838759793578036, 등록일: 2025.1.27., 검색일: 2026.3.25.

54) https://twitter.com/t****k****p****s***/status/1877574066519027904, 등록일: 2025.1.10., 검색일: 2026.3.25.

55) https://twitter.com/t****s****_*****/status/1906399192962261128, 등록일: 2025.3.31., 검색일: 2026.3.25.

얇은 축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적 지식의 커먼즈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설혜심·조현철은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12.3 내란 경험을 분석하면서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가 넘쳐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체제수호적 보수성”으로 해석한 바 있다. “계엄은 돌발적인,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역사적 퇴행”으로 “비록 질곡을 겪어왔지만, 우리 역사는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며 “그 체제를 만들어 온 주체는 바로 시민들”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X는 진보적인 2030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역사 인식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⁵⁷⁾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생사를 초월하여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강렬한 정동이 “빛을 진 느낌”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일 터이다.⁵⁸⁾

그 정동에 빚졌다는 생각이 가깝게는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더 멀리는 5월 18일 광주에 이르기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 빛을 지고 있었던 존재들, 곧 타자에 대한 관심을 요청한다. 한 X 유저는 한강 작가의 연설문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이자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인 김진숙의 퇴직 연설문과 함께 읽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십시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갈라서지 않는 이 단결의 광장이 조합원들의 합성으로 다시 꼭 차는 미래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가십시오.”⁵⁹⁾ 이 연설문을 읽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궁금해진 다른 유저는 그녀의 삶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분의 삶을 정리한 글을 읽고 나니 내가 나고 자란 사회가 낯설게 느껴졌다. 글의 말미에 청년들은 당신을 모르길 바란다

56) 설혜심·조현철, 「계엄의 미시사: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평범한 시민들의 12.3 내란 경험」, 『한국사학사학보』 51, 한국사학사학회, 2025, 84-85면.

57) X를 이용하는 2030 여성의 진보성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할 것. 「가디언처럼 엑스를 떠나지 않는 이유」뉴스룸에서, 『한겨레』, 2024.12.4.

58) https://twitter.com/s***o**/status/1870801757372367060, 등록일: 2024.12.22., 검색일: 2026.3.23.

59) https://x.com/h***m***/status/1865961895452356758, 등록일: 2024.12.9., 검색일: 2026.3.23.

다셨지만 몰랐던 청년으로서 나는 모두가 이분을 알게 되길 바란다.”라고 썼다.⁶⁰⁾ 자기 이외에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던 타자에 대해 알고자 하고, 그에게 응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커먼즈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적대의 시대에 커먼즈로서 소설이 어떻게 저항의 자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답할 수 있을 듯하다. 한강의 메시지는 『소년이 온다』라는 서사 속에서 떠오른 질문이었으며, 동시에 1980년 5월 광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엄의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었다. 즉, 소설은 ‘밈’이라는 존재 조건을 위해 탈맥락화되어야 했지만, 한강의 메시지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서사적·역사적 아우라가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한강의 밈은 완전히 휘발되지 않는 무게를 지닐 수 있었다. 이는 비상계엄으로 표출된 소유 공화국의 반지성적 적대에 맞서게 하는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⁶¹⁾ 내란 이전/이후에도 젠더, 인종, 장애, 연령 등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들이 광장에 나와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소설이 커먼즈가 되어 저항의 자원으로 타자들에게 가닿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식을 벗어나 ‘밈’으로 좀 더 가벼워져야 했던 것이다. 이렇듯 12.3 내란 이후 한강 작가의 질문이 밈화되는 과정은 ‘소설의 밈화’ 역시 커먼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60) https://x.com/c***b*/status/1866125997378302239, 등록일: 2024.12.9., 검색일: 2026.3.23.

61) 한강의 밈을 게시한 유저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사이트의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반국가세력 트위터 계정 500개’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해당 사실을 알려주신 ‘c***m***’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https://x.com/c***m***/status/1899317009277763867, 등록일: 2025.3.11., 검색일: 2026.3.26.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뭍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2020).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2024.

장정일, 『구월의 이틀』, 랜덤하우스, 2009.

X, 『한겨레』

2. 단행본

김경수, 『한국 인터넷 뭍의 계보학』, 필로소픽, 2024.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리모르 시프만, 최은창 역, 『디지털 문화의 전파자 뭍』, 한울, 2022.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이상임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8.

샬탈 무페, 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역, 『공통체』, 사월의책, 2014.

이광석, 『피지털 커먼즈』, 갈무리, 2021.

제라르 주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천정환, 『승배 애도 적대』, 서해문집, 2021.

피터 라인보우, 정남영 역, 『마그나카르타 선언』, 갈무리, 2012.

3. 논문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2020.봄, 17-49면.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생산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9(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187-211면.

박인성, 「뭍과 신조어로 읽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부족주의-남초 커뮤니티의 정서적 평등주의와 위임된 성장서사」, 『대중서사연구』 28(2), 대중서사학회, 2022, 59-93면.

서원득·최혜령, 「광장으로 나온 무협·12.3' 이후 시위의 '무협 깃발' 연구」, 『한국언어문화』 87, 한국언어문화학회, 2025, 135-176면.

설혜심·조현철, 「게임의 미시사: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평범한 시민들의 12.3 내란 경험」, 『한국사학사학보』 51, 한국사학사학회, 2025, 53-92면.

실비아 페테리치·조지 카펜치스, 권범철 역,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선 커먼즈」, 『문화과학』, 2020.봄, 173-190면.

- 안새롬, 「한국의 대기·기후 보전 실천과 커먼즈 정치」, 서울대학교 협동 과정 환경교육 전공 박사학위논문, 2022, 1-215면.
- 이택광, 「반지성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자음과 모음』, 2017.가을, 188-199면.
- 이희우, 「평범한 자는 들어오라」,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2024, 303-331면.
- 인아영, 「2022년 여름호를 펴내며-반지성주의 시대의 문학」, 『문학동네』, 2022.여름, 1-7면.
- 정고은, 「'헨겔'과 '말벌': 초대장에 응답·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2025.봄, 116-132면.
- 최권호·손영은·이종화·주연선·유진선, 「12.3 비상계엄상태 이후 탄핵 촉구 집회에서 나눔 활동의 경험과 의미」, 『비판사회정책』 8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5, 43-78면.
- 황정아, 「문학성과 커먼즈」, 『창작과 비평』, 2018.여름, 15-30면.
- 황호덕, 「계엄과 한국문학-한강의 질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동문화연구』 13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25, 121-160면.

<Abstract>

Memes and Fiction as Commons in the Era of Antagonism

Lee, Soyoung

This study explores how “memes” and “fiction” can serve as resources for resistance as a “commons” against “anti-intellectualism,” a specific “form of antagonism” triggered by contemporary neoliberal anxiety. To this end,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memes and fiction can function as a commons. Through the documentary *Feels Good Man*(2020), it argues that for a meme to become a commons, a struggle for contextualization is required to transcend its inherent nature of decontextualization. Furthermore, focusing on Jang Jung-il’s *Two Days in September*(2009), the study reveals that fiction can become a commons through the collaborative dimension of the writing process and can stand in opposition to anti-intellectualism depending on the author’s intent.

However, this raises a further question as to whether “fiction” itself can fully emerge as a commons while still occupying the position of a “commodity.” Thus, the study analyzes the “fictionalization of memes” in Kim Ki-tae’s *Two People’s International*(2022). This work not only experiments with “common focalization” on a formal level but also emphasizes a community originating from the physical bodies of two individuals on a thematic level. In this context, memes serve as a catalyst for the encounter between two individuals, predicated on common

focalization, and define their relationship. In other words, memes function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mmons through the physical collision of two bodies. Finally, in the aftermath of the December 3 martial law declar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questions derived from Han Kang's novels and speeches—"Can the Past Aid the Present? / Can the Dead Save the Living?"—have been memefied on X (formerly Twitter). By analyzing this phenomenon of the "memefication of the novel," it further seeks to address whether the novel can function as a form of commons.

Key words: antagonism, anti-intellectualism, memes, fiction, *Feels Good Mar*(2020), *Two Days in September*(2009), *Two People's International*, December 3 Martial Law Declaration, "Can the Past Aid the Present? / Can the Dead Save the Living?", fictionalization of memes, memification of fiction

투 고 일: 2026년 2월 16일

심 사 일: 2026년 3월 9일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13일

수정마감일: 2026년 3월 28일